



제92회 춘향제

2022년 남원시TV 하반기 영상기자단 4명 선발

남원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남다른 열정으로 남원의 곳곳을 활영하며 생생한 소식을 전해줄 2022년 남원시TV 하반기 영상기자단을 지난 3일 선발했다.

이번 하반기 영상기자단은 12명 지원, 4명 선발로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6월까지 활동을 마친 4명의 상반기 영상기자단은 '소풍가기 좋은 인월', '춘향제 풍경' 등의 생동감 넘치는 17편의 영상을 만들어 남원의 매력을 많은 시청자에게 소개하였다.

이번 하반기 영상기자단 또한 남원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남원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위해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도록 영상기자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루하고 딱딱한 영상이 아닌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제작을 통해 남원시 유튜브 시청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유튜브는 구독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도민제천 홍보영상 등 재미있는 영상을 통하여 시청자와 적극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존: 호모 심비우스의 지혜’展 후원

경암, 이팝프렌즈 협약 체결

전주의 문화예술을 위한 후원회 이팝프렌즈가 발족한 이후 전주 한빛기업의 기부 후원과 개인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앞장서 온 (유)경암(대표 엄윤숙)이 전주의 문화예술을 위해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팝프렌즈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업과 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술 후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협약과 함께 (유)경암이 후원하는 ‘공존: 호모 심비우스의 지혜展(2022.9.1. ~ 10.9.)은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기획전으로,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환경 보존’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문제의식을 예술작품을 통해 성찰하고 지구환경위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전시는 환경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김성호 예술감독과 총 8인·단체의 예술가·단체가 함께한다. 그 밖에, 전시 개막식(9.2)에 맞춰 최재훈 교수(이화여대 석좌교수·생명디자인 재단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고, 전시 중 아티스트 토크, 예술치유 프로그램, 전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불모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를 발굴, 육성해 온 (유)경암은 장학금 지급 및 교육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노인 지역 아동 및 장애자, 정부 수급자, 예체능의 숨은 인재를 육성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유)경암 엄윤숙 대표는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아름다운 예술 후원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예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유)경암의 가치와 철학이 예술 후원으로 이어져 지역의 예술가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기쁨진 토양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종택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해 동안 수행하는 국가위임·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에 대해 매년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보고회는 부안군 79개 지포 중 정량지표 평가대상 51개 지포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지표와 실적이 저조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제고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은 전년도 부진지표와 올해 신규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기적인 진행상황 점검, 우수지표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 체계적으로 목표를 관리하고 매월 보고회를 통해 부진지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택 부군수는 “합동평가는 지자체의 행정역량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제도인 만큼 부안군 평가대상 지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교과연계 발효과학 강사 워크숍

(재)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원장 김재건)은 지난 4일 ‘2022 교과연계 발효과학 프로그램’ 참여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교과연계 발효과학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9월부터 11월 3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유아~중등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발효과학에 대한 10여개의 유익한 체험·진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은 교과연계 발효과학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11명의 강사들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과 △발효테마파크 내 전시시설 현장 순회 △초등 교육과정 이해 및 교수법 특강(강사 손준호 수석교사/광주 대봉초) △탐방 기획 워크숍으로 이뤄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참여강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효를 어떻게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지 방향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건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발효와 미생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체감, 진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며 참여자가 발효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서울 마포구, 청소년 교류활동 열려

전북 고창군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청소년들이 만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4일 마포구 청소년 20여명이 고창군을 방문해 지역 청소년들과 친선 교류활동을 하고 고창읍성, 청소년문화센터 등 곳곳을 다니며 활력넘치는 고창의 매력을 즐겼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영상환영사를 시작으로 동네저장 등으로 진행됐다.

또 고창청소년수련관과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이 기관간 업무 협약을,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 자매결연 협약식도 함께 진행해 앞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청소년들은 문화센터를 방문해 에어리프 등 게임을 활용한 경진대회와 고창읍성 갖바 찾기 게임 등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창군청 양지영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마포구 청소년들이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인 고창군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양 지역 청소년들간에도 돈독히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오버그로우’ 애견카페, 취약계층 위한 쌀 후원

낙후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전주지역 도시재생 사업지 주민들을 위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최세미 애견카페 ‘오버그로우’ 대표가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용머리 여의주 마을과 도토리골 새마을을 주민들을 위한 쌀(10kg) 170포를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쌀은 기증자의 의사에 용머리 여의주 마을 주민들에게 110포, 도토리골 새마을을 주민들에게 60포가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최세미 애견카페 ‘오버그로우’ 대표는 “전주시가 아닌 김제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지만 가까운 지자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이번 전달식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머리 여의주 마을과 도토리골 새마을을 외에도 남소동·전주역세권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 자봉센터,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캠페인

김제시자봉센터(센터장 강공행)는 지난 5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GCG(지구를 지키는지평선) 릴레이 캠페인에서 친환경 설거지 비누 100여개를 제작해 김산주공아파트 경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GCG 릴레이 캠페인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봉사단체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물품을 직접 만들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해 매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천연염색 소프넷 세제 사용을 위한 삼베 주머니 만들기 개인 손수건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손수건 천연염색, 친환경 EM 세제 만들기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물품을 만들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주지는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솔기로운 주민

모임 중 “지구를 살리는 모임”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액상용 주방세제의 플라스틱 용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체 설거지 비누를 제작해 전달했다.

남공행원 센터장은 “GCG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나 혼자만의 실천이 아닌 모두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김제시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 망성면, 취약계층 100세대 삼계탕 나눔

익산시 망성면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5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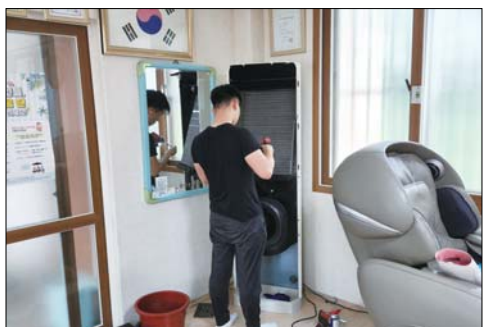
이들은 익산 한빛기업인 (유)하림에서 기증받은 토종닭으로 마련한 삼계탕과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 100세대에 방문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 50여명은 전날 새벽부터 손수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끓인 삼계탕과 입맛을 돋이울 배추김치를 정성들여 개별 포장으로 준비했다.

운영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연일 무더위와 코로나19상황에 지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준비했다”며 “정성 가득한 여름 보양식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망성면 새마을부녀회는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반찬나눔, 환경정화 활동, 김장나눔 행사 등 관내 저소득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경암동, 경로당 어르신 분해 청소 실시

습하고 무더운 여름, 군산시 경암동에 시원한 소식이 날아왔다.

경암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길호)가 관내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어르신 분해 청소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호흡기가 취약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에어컨을 완전히 분해, 내외부 곰팡이를 말끔히 제거하고 소독했다.

박현자 경암동장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임실군, 경로당 통합건강생활실천교육

임실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경로당 체조교실과 연계하여 지역 내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흡연예방 △음주절제예방 △영양교육 △노인구강관리 등의 주제를 가지고 보건의료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의사, 간호사, 영양사)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하반기에도 15개소 경로당을 추가 선정하여 약 3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로당 통합건강생활실천교육 시 영양 및 구강상담, 틀니지원, 금연클리닉 등의 의료원 내 연계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통합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 왕정동, 1일 1가구 방문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남원시 왕정동(동장 안병오)은 매일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대민행정 중심의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왕정동장은 매일 오전 자전거 또는 도보로 구석구석 살피는 소동행정으로 주민 불편 사항 점검을 오후에는 사회복지 담당자와 함께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똑똑똑, 왕정동장입니다.” 1일 1가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 대상자의 건강 상담을 비롯하여 보건·의료·복지 등 맞춤형 통합 상담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4차 백신 접종 독려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및 경제력 약화로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실직, 고독사, 방임 등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왕정동장은 “매일 주민과 현장 소통을 통하여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누수 없는 민·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으로 따뜻한 왕정동, 더 행복 왕정동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